

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784천km ²	GDP	7,945 억 달러 ('14)
인구	76.00 백만명('14)	1인당 GDP	10,450 달러 ('14)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신 터키리라 (Yeni Turkish Lira)
대외정책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환율(달러당)	2.20 ('14)

- 터키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2번째로 많은 7,54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NATO 회원국으로 여타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정교분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2004년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 독립국 지위 인정, 쿠르드족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중단되었던 가입협상이 최근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시장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포스트 브릭스(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2012년 8월부터 FTA를 체결하여 2013년 5월 1일 상품 분야 FTA가 발효된 바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9.3	8.8	2.1	4.1	3.0
재정수지 / GDP	-3.6	-1.4	-2.1	-1.2	-1.4
소비자물가상승률	8.6	6.5	8.9	7.5	8.9

자료: EIU.

□ 소비지출 둔화로 2014년 경제성장률 둔화

- 2012년 인플레이션 완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터키 정부의 긴축정책 및 주요수출시장인 EU의 재정위기에 따라 터키의 경제성장률이 2.1%로 낮아졌음.
- 2013년 경제성장률은 소비지출 증가와 투자 확대 등으로 4.1%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지출 둔화와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대로 소폭 상승

- 터키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과거 경제위기의 유발요인과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어왔음.
- 2012년에는 수입물가 상승과 전기 가스요금 및 각종 간접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9%로 상승함.
- 2013년 리라화 약세로 인해 자동차 연료를 비롯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낮은 국내수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7.5%를 기록하였음.

- 2014년 4~9월에는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9%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확대되었으나, 국제유가 하락 지속으로 하락세에 진입하여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소폭 확대

- 터키 정부는 과거 선심성 재정지출로 재정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나타냈으나, EU 가입을 위해 재정수지 적자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터키 정부는 2011년 총선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사회보장 기금관리, 재정지출 억제정책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1.4%까지 축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2.1%로 다소 확대됨.
-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정책 시행과 민영화 등 일회적 성격의 재정수입 확대로 -1.2%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1.4%로 전년대비 소폭 악화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경제구조적 위험요인 상존

- 외국자본 의존도 심화로 인해 성장전망 악화시 투자 위축 가능성 잠재
 - 터키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변동성이 큰 외국자본으로 보전하고 있어 자본유출 위험이 상존함.
- 터키 정부는 3개년 중기경제프로그램(2014~2016년) 발표를 통해 현실적인 경제 목표를 설정함.
 - 터키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 수입의존도 감축, 저축률 증대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밝힘.

나. 성장잠재력

□ 지정학적 요충지와 풍부한 노동력 보유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

- 터키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함. 터키를 중심으로 지중해 건너편은 북부 아프리카, 흑해 건너편은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인종적 역사적 유대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터키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할 정도로 지정학적 요충지임.

□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송 허브 역할

- 터키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국 영토를 지나는 가스관 및 송유관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수송 허브로서의 입지 구축
 - 터키 주변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수송 허브로서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수송관으로는 Baku-Tbilish-Ceyhan(BTC) 송유관과 Baku-Tbilish-Erzurum(BTE) 송유관 등이 있으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가스관을 구축하는 Southern Corridor 프로젝트와 카스피해에서 불가리아 국경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인 TANAP 프로젝트 등이 있음.
 - 2015년 1월 러시아가 밝힌 터키 가스관 건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수송 허브로서의 입지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터키 주변의 에너지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

다. 정책성과

□ 2013년 5월 IMF 차관의 전액 상환

- 터키는 2013년 5월 IMF 채무액 4억 1,200만 달러를 상환함으로써, 2000년대 초반의 유동성위기로 인한 IMF의 긴급 구제금융 차관지원 프로그램이 일단 종료된 상황임.
- 지난 1961년 IMF로부터 차관을 도입한 이후 19차례의 대기성차관 협상을 통하여 총 565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았던 터키 정부에 대한 차관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됨.

□ 경제개혁 지속 추진

- 터키 정부는 민영화청(Turkish Privatization Administration)을 통해 200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 개입 최소화, 정부 재정부담 경감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함.
- 전력 배급과 도로 및 교량부문의 매각을 통한 활발한 민영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에너지, 방위, 의료 등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인프라 개발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철도민영화법이 제정된 데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PPP추진법이 또한 제정되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 상 수 지	-45,420	-75,082	-48,497	-65,061	-45,946
경상수지 / GDP	-6.2	-9.7	-6.1	-7.9	-5.4
상 품 수 지	-56,323	-90,141	-66,604	-81,592	-74,037
수 출	120,992	142,392	161,948	161,789	169,028
수 입	177,315	232,533	228,552	243,381	243,065
외 환 보 유 액	80,713	77,756	99,943	110,927	112,928
총 외 채 잔 액	303,150	324,223	381,084	423,253	443,695
총외채잔액 / GDP	40.9	39.4	42.7	47.2	50.5
D S R	36.3	29.7	26.0	28.5	28.0

자료: EIU 및 IIF.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터키는 중간재 및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음.
- 2012년에는 수입실적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관광수입 및 수출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6.1%로 개선되었음.
- 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악화된 -7.9%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리라화 약세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축소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5.4%로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터키는 FDI(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 및 EU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의 감소가 우려되며, 외부 충격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증가율 둔화

- 터키의 수출은 EU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였으나, 2012년 이라크, 이란, UAE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역 다각화에 기인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총수출증가율이 12.37%를 기록함.
- 2013~14년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어 1.56% 및 4.19%를 기록함.

□ 러시아발 금융위기 및 유로존 위기에 따른 달러화강세로 리라화 가치 하락

-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3년 미달러 대비 리라화 평균환율은 1.9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2.19로 상승함.
- 러시아 발 위기와 터키 내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해 2015년 1월 미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가 2.4184리라로 2005년 화폐개혁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 외환보유액은 2014년 말 1,318억 달러 수준으로 월평균 수입액의 4.5개월분에 달함.

□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등 외채구조의 점진적 개선에도 단기외채 비율이 높은 편

- 총외채잔액은 2011년말 3,242억 달러, 2012년 말 3,811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전년 대비 확대된 4,233억 달러를 기록함.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2013년 47.2%, 2014년 50.5%로 상승하는 등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1년 외채증가와 함께 104.56%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100%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는데, 2013~14년에는 각각 118.44%, 117.19%를 기록함. 높은 단기외채 비율로 인해 자금유출을 유발하는 외부충격시 리라화 약세에 대한 대응여력이 떨어지는 것이 위협요소로 분석됨.

□ DSR은 28% 이상의 높은 수준 유지

- 과거 터키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 30~40%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었으나,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2011년부터 20%대에 진입하여 2014년 말에는 28%를 형성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총선에서 정의개발당(AKP)의 재집권으로 정치안정성 제고

- 2002년부터 집권해 온 정의개발당(AKP)은 2011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며 재집권에 성공함.
- 현 여당은 50%대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500석 중 327석(약 65%)을 차지함. 이는 10%미만을 획득한 정당은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관련 법을 따른 데 기인함.

□ 2014년 8월 대선에서 에르도안 총리의 대통령 당선

- 2014년 8월 터키 사상 첫 직선제 대선에서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가 51.8%를 득표해 과반 득표로 1차 투표에서 당선됨으로써 2003년부터 11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한 후 5년간 대통령으로 정권을 유지할 예정으로 정치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1923년 아타투르크 정부 수립 이후 정교분리의 원칙 엄격히 적용

- 터키 국민의 99%는 이슬람교(수니파)를 믿고 있으며, 1923년 아타투르크 정부 수립 이후 정교분리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 간 분쟁은 없는 편임.

□ 고위층 뇌물수수혐의 등 부정부패 의혹 팽배

- 2015년 1월 터키 의회 조사위원회는 뇌물수수혐의를 받은 전 장관 4명에 대해 무죄를 판명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수사 중단을 지시함. 이와 관련하여 터키 국민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조사 보도금지 조치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야기됨.
- 혁명인민해방전선(DKHP-S)은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의 부패를 비난하며 이에 대한 공격으로 폭탄 테러를 일으킴.
- 경찰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 국토안보법 안은 2015년 1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의개발당(AKP)의 찬성으로 통과됨.

□ 집권당에 대한 반발로 반정부 시위 및 테러 빈발

- 2014년 5월 30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소마탄광 폭발사고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사고대처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 2014년 6월에는 탁심광장 재개발 반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과잉진압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 1주년을 맞아 터키 전역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계속됨.
- 2015년 1월 터키 이스탄불 주요 관광지 인근 경찰서 등지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함.
- 혁명인민해방전선(DKHP-S)의 술탄아흐멧 지역에서의 폭탄 테러로 경찰관 1명이 사망함.

□ 쿠르드반군 PKK와의 평화협상 2년만에 위기 직면

- 터키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동남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쿠르드반군 (PKK)의 분리운동 및 충돌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터키 정부는 평화적 협상을 위해 노력해왔음.

-2013년 3월, PKK의 지도자인 압둘라 외잘란이 PKK 요원들의 무장해제와 철수를 촉구함에 따라, 북부 이라크를 본거지로 한 전투사령부의 Murat Karayilan 사령관이 PKK 관련 모든 조직의 휴전을 선포하고 철군을 시작함.

- 2014년 10월 터키공군이 쿠르드반군 PKK의 거점을 공습하여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평화협상 결렬 위기가 고조됨.

3. 국제관계

□ 친서방, 친아랍의 균형외교 (실용적 중도 노선 유지)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서방과 중동 국가간 중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터키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엄격한 정교분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여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음.

- 이슬람국가 중 유일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1947년 터키가 트루만 독트린을 지지하여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시작한 이후 1980년 미국과 국방경제협력협정(DECA) 체결, 1991년 진보된 협력관계를 거쳐 199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음.

- 최근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은 팔레스타인 정부 하마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

□ 가스관 건설 관련 러시아 지지 입장

-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2014년 TAP사업에 밀려 중단됨.

- EU의 가스관 사업에 대응하여 러시아(Gazprom)는 이탈리아(Eni)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사우스스트림(SouthStream) 가스관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시장을 장악하고자 하였음.

- 러시아는 2015년 1월 사우스스트림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터키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터키는 가스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 측면의 혜택도 누릴 것으로 전망됨.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 및 테러 발생으로 양국간 긴장 고조

- 터키 정부는 과거 시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1년 시작된 시리아 정부의 자국 내 시위 유혈진압에 대해 비난하며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함.
- 시리아 사태가 내전 양상으로 심화되며 터키 남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도 폭격 및 테러사건이 발생함.
 - 2012년 6월 시리아 공군은 터키 전투기를 격투시켰고 같은 해 10월 터키 남부의 시리아 국경지역(Akcakale)에도 시리아 군의 박격포 공격이 있었음. 또한, 2013년 2월 터키 남부의 시리아 국경 인근(Cilvegözü)에서 대규모 차량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 2014년 9월에는 이슬람국가(IS)의 공격을 피해 13만 명 규모의 시리아 쿠르드족 난민이 터키에 유입되는 등 난민 유입이 지속됨.

□ 사이프러스의 독립국 지위 인정문제는 답보상태

- 전통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와도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음.
- 2004년 5월 남부 사이프러스가 단독으로 EU에 가입하였고, 12월 정상회의에서 EU는 남사이프러스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였으나 터키는 남사이프러스 영공 및 자국항구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EU 가입협상 재개 가능성

- 터키는 199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입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2004년 EU의 정치 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충족하여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하였음.

- 터키 정부는 EU가 제시한 가입협상 개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형제도 및 국가안보법 폐지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사이프러스 지위 인정 및 영토 분쟁 등으로 현재까지 가입이 지연되고 있음.

- 2014년 10월 EU가 터키에서의 언론인 체포를 두고 언론탄압을 비판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EU의 가입 허락을 신경쓰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경제구조 개선 노력으로 IMF의 긍정적 평가

- 터키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유동성 위기가 자주 발생하여 과거 외채 리스케줄링을 받거나(1978년 13억 달러, 1979년 12억 달러, 1982년 30억 달러), IMF의 대기성차관(1984~2005년, 총 520억 달러)을 지원 받은 경험이 있음.

- 재정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해 외채상환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 및 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2008년 5월 IMF의 대기성차관이 종료된 이후 추가지원을 받지 않았음. 2012년 6월 IMF는 유로존 위기와 선진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2013년 5월 IMF 차관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2014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4,437억 달러로 GDP 대비 50.5%에 달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14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62억 달러, 중장기 294억 달러로 총 356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2,350만 달러로 전체의 0.07%에 그쳐 공적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이 0등급(0.5%)으로 최상위 수준임.

□ 주요 ECA 지원 태도

- 미국 EXIM: 최고부보율적용(Full Cover Available)
- 영국 ECGD: 최고부보율적용(Full Cover Available)
- 독일 Hermes: 단기인수가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ST Cover Available, Restrictions May Apply)

2. 국제시장평가

□ 3대 신용평가기관 및 OECD, 2013년 5월 이후 기존 등급 유지

- 2013년 3월 S&P는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 재정건전성 강화 및 쿠르드족과의 긴장완화를 이유로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3년 5월 Moody's 또한 터키의 제도개혁의 성과에 따른 대외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Ba1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음.

-S&P는 2014년 2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하였으며, Moody's는 2014년 4월 재평가를 통해 등급을 Baa3로 유지함.

- 2012년 11월 Fitch는 공공부채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수출 다변화 및 건전한 은행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터키가 지속 가능한 경제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터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 등급인 BBB-로 상향 조정함.

-OECD: 5(2007.1)→ 4(2008.1)→ 4(2015.1)

-S&P: BB(2012.5)→ BB+(2013.3)→ BB+(2014.2)

-Moody's: Ba1(2012.6)→ Baa3(2013.5)→ Baa3(2014.4)

-Fitch: BB+(2011.11)→ BBB-(2012.11)→ BBB-(2013.10)→ BBB-(2014.10)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5. 2)	C1/Stable (2013. 12)
OECD	4등급 (2015. 1)	4등급 (2014. 1)
S&P	BB+ (2013. 3)	BB (2012. 5)
Moody's	Baa3 (2013. 5)	Ba1 (2012. 6)
Fitch	BBB- (2012. 11)	BB+ (2011. 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 1957. 3. 8 (북한과는 2001. 6. 27)

주요협정

- 사증면제협정('72년),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년), 이중과세 방지협정('86년), 투자보장협정 ('94년), 섬유협정('97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99년)

대 터키 경제교류는 정치 외교적 관계에 비해 미흡한 편

- 터키는 우리나라의 21번째 수출국이자 56번째 수입국으로, 2014년 대 터키 수출은 66.7억 달러, 수입은 6.6억 달러를 기록하여 양국 간 경제교류는 정치 외교적 관계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실적은 2014년 12월 말 기준 11.6억 달러(신규 법인수 131개) 수준임.

<표 4> 한·터키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4,552	5,658	6,668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철강관
수 입	672	692	655	석유제품, 농약 및 의약품, 의류
합 계	5,224	6,350	7,323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터키 양국간 FTA 체결로 향후 교역 및 투자증대 예상

○ 한-터키 상품 FTA는 2012년 8월 정식 체결되어 2012년 11월 우리나라 국회 비준이 통과되었으며, 2013년 1월 터키 의회비준과 3월 정부 서명절차를 거쳐 2013년 5월 1일자로 발효됨.

-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효과가 큰 품목으로는 TV 수신용 기기, 자동차 부품, 선박, 광학렌즈, 철강 등이 있음.

○ 2015년 상반기 정식 체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중인 서비스 및 투자분야 FTA(2012년 FTA는 상품분야에 대해서만 체결)가 체결될 경우 대 터키 교역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V. 종합 의견

□ 터키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주요 신흥시장임. 2013년 경제성장률은 내수 확대로 4.1%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민간소비 둔화, 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로 둔화됨.

□ 2011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재집권에 성공하여 에르도

안 총리가 재선임되면서 집권 3기의 국정을 운영함. 2014년 8월 터키 사상 첫 직선제 대선에서 에르도안 총리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치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됨.

-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터키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과 경제구조 개선을 이유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 기존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는 2012년 8월 상품 분야 FTA를 체결하고 2013년 5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5년 상반기 정식 체결을 목표로 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 FTA 협상이 실질 타결이 예상되어 향후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확대가 기대됨.

조사역 조희연(☎02-6255-5708)

E-mail: chy@koreaexim.go.kr